



김황식 국무총리(왼쪽부터)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과 행사에 참석한 심 박사.

▶ 지난해에만 10만명의 양국 국민들의 방문이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인도로 건너가는 추세가 크게 늘었다. 그 중 70%는 사업차, 20%가 여행, 나머지 10% 정도가 교육 문제로 인도를 찾는다.

특히 교육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를 방문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 진정한 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젊은이 한 명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되면 그 아래 학생들까지 미국을 동경하게 되는 식이다.

실제로 인도의 교육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인도를 찾는 학생층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대학은 물론 중고생의 비율이 높다.

-인디아 에듀케이션 센터를 열게 된 배경과 내용은.

▶ 양국인의 교류를 돕고 나가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유학 지원이다. 사실 인도에는 엄청난 숫자의 학교가 있고, 각자 강점도 다르다. 교육 내용만이 아니라 숙박이나 주변 환경은 어떤가. 학생의 관심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 좀더 쉽게 인도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위해 인도를 찾는 사람들의 사전 교육을 위해서다. 현지 사정은 물론 인도의 문화적 배경과 관습 등 염두에 둘 것이 많다.

세 번째는 한국의 대학과 인도의 대학 간 교류를 돕기 위해서다. 인도에는 한국 국민 숫자만큼이나 많은 중산층이 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만 유학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 인도로 학생을 보내 취업 경쟁력을 갖게 하는 한편 인도의 학생들이 한국에 오도록 학교간 교류를 도울 수 있다. 나 역시 인도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고, 학교 및 교수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 대한 리서치 사업을 도울 수 있다. 사업은 물론 예술이나 문화 등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조인트 리서

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 중이다. 인도 문화, 인도 음식, 심지어는 인도 춤까지 소개할 수 있다.

-인도 교육의 강점은.

▶ 잘 알려졌듯 인도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급이다. 일찌감치 영국식 교육 시스템을 갖췄으며, 과학과 수학은 물론 MBA도 무척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인도를 찾는 학생이 많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은행이나 병원, 주요 기관에서는 꼭 인도인을 한 명씩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인도에서 교육을 거치면 영어 사용은 기본이다. 비용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것도 강점이다. 또한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인종 문제 등 편견이 없는 나라다. 한국 학생은 적응이 쉽다.

무엇보다도 한국기업 역시 인도 전문가를 찾는 추세라 취업에 유리하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미국에 가는 것보다 인도에서 공부하는 게 답이다. 인도 출신 학생이 일자리를 못 찾았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이 정도의 지원을 펼치려면 네트워크가 상당해야 하는데.

▶ 나는 한국에 있는 인도인 가운데 다섯가지 면에서 최고를 자신한다.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인도와 한국 대학 모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가장 학술적인 경력이 길고, 또한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술 활동을 했다. '인도-한국 비즈니스&정책 포럼' 창설을 비롯해 30회가 넘는 가장 많은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 '비즈니스&테크놀러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는 등 그동안 인도는 물론 한국의 술한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이어왔다. 인도쪽에 관심있고 연계가 있는 한국인이란 내 이름을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인도의 기업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인디아 에듀케이션 센터를 열게 된 것은 이 일이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에듀케이션 센터는 진정한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일이다.